11/19/23

설교 제목: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시편 136 편 1-26 절

(시 136: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절관주] 신 10:17

(시 136: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6)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절관주] 욥 26:7

(시 136: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절관주] 시 74:16

(시 136:8)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절관주] 출 12:29

(시 136: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9)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1)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2)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 함께 낭독했던 예배 감사시입니다.

레위인들이 앞 부분을 선창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를 후창하였습니다.
예배시답게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 복음 선포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조는 매우 간결합니다.
천지 창조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언약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열거한 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보통의 경우 후렴구는 별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본시의 경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후렴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지는 성경적인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하나님께 정확한 취지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며, 본받아 살아야 할 삶을 바르게 실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사용된 '인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의미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자'라고 하면 '친절이나 온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한정적인 의미에 머물지 않고 맺은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 약속된 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자비와 호의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의미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시에서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창조와 구원, 두 범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5-9 절까지 창조에 있어서, 10-25 절까지 구원과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자하심에 대해 언급합니다.
기자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비범한 능력으로 역사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자하시다고 표현합니다.

기자는 이 시를 쓰면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 감사합니다.
(시 136: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자는 하나님을 여러 형태로 묘사합니다.

'여호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무엇 중에 무엇'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최상급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 중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란 세상 권력자들보다 월등하신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적용하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이어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며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 136: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6)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8)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란 하나님만이 창조 사역을 행하실 수 있다는 말로 피조 세계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월등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서 '지혜(태부나)'는 특별히 창조 사역 가운데 드러난 신적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적적 사역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하늘(궁창)이 놋같은 금속을 부어 만든 틀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라는 말은 고대인들의 땅은 산의 기초가 되는 기둥들에 의하여 지탱되고 거대한 대양의 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서 큰 빛들은 해 달 별과 같은 발광체를 가리킵니다.

고대 중동사람들에게 '해(태양)'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왕들은 대부분 태양신의 아들로 여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숭배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달도 숭배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일을 할 수 있게도 해주며,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달과 별이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을 심판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사람들의 숭배 대상인 큰 빛들이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 136: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400 여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애굽 바로 왕을 찾아갔으나 바로 왕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 가지의 재앙을 내렸을 때만 해도 바로 왕은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열 번째 재앙 곧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내리자 바로 왕은 마침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내신 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꺼내 주신 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지금까지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자는 그 일 곧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 136: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 곧바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열 번째 장자 재앙이 내리자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바로 왕은 곧 마음을 바꿉니다.

그는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 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치 땅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 홍해를 건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다시 홍해를 흐르도록 하셔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기자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탁월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40 년 동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 136: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9)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 주셨으며 병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강한 열방의 왕들을 죽이고 그들 소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택한 백성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지속성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기자는 그리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 136:21)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2)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아모리 바산 등 이방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노예로 400 여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토착민들과 교류합니다.
서로 혼인함으로써 그들의 이방 문화에 젖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그들과의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여 당신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견인하여 마침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여 언약을 맺으신 백성과의 언약을 그분의 탁월함으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앙 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곤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인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의 문을 열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시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 136: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 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건대 한 해동안 졸은 일들을 많이 겪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힘들고 슬픈 일들을 겪었거나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광야인 인생 길을 걷노라면 힘든 때도 슬플 때도 진퇴양난 위기에 처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을 지라도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적적인 역사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할지라도 당신 홀로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견인하여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택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시다!